Revista Iberoamericana, 14, 2003

Pro-drop에 대한 비교 분석: 교육적 접근

심 상 완
단독/단국대학교

Shim, Sang-Wan(2003). Comparative study on *pro*-drop : Pedagogical approach. *Revista Iberoamericana*, 14, 113-13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 called "*pro*-drop phenomenon" in Korean and Spanish. These languages are very different in many respects, but they seem to be similar with respect to this phenomenon: both of them allow the subject position to be empty. Firstly, we wonder why Korean students tend to use explicit personal pronoun in the subject position when they speak in Spanish. We argue tha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pro*-drop mechanism does not apply uniformly in these languages and that Korean affects "negatively" in Spanish learning. Secondly, we try to answer why Spanish shows subject-object contrast with respect to licensing an empty category. To answer the question, firstly we assume that two elements participate "compositionally" in licensing an empty categoy in Spanish: (i) antecedent in the discourse and (ii) identification feature of Agr(AgrS, AgrO). Given this assumption, we conclude that object-drop is not allowed because one of these two conditions is not satisfied: (ii), whereas subject-drop is permitted because both of them are satisfied.

Key Words: *pro*-drop/ pedagogical approach/ Agr, 주어탈락현상/ 교육적 접근/ 일치소

Ⅰ. 서론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언어이지만 주어 탈락 현상(pro-drop)과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주어 위치에 어떤 明示的(explicit) 요소의 출현을 반드시 요구하는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명시적인 주어가 경우에 따라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스페인어도 한국어도 신이 창조한 언어이기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라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스페인어를 가르칠 때 두 언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대조적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란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스페인어의 어떤 현상이 한국어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경우는 학습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스페인어에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만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필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학습자들은 대학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스페인어를 접하는 까닭에 스페인어를 어린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습득(acquisition)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학습(learning)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적 학습의 커다란 애로 사항은 모국어인 한국어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목표어인 스페인어의 특정 현상을 학습할 때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 스페인어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1] 이로 인해 Ser/Estar의 구분, 직설법/접속법의 구분, 정관사/부정 관사의 구분, 부정 과거/불완료 과거의 구분, LE 소유주 인상 구문 등과 같이 한국어에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현상들은 하나같이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워하거나 구사하는 데 애로 사항을 겪는 것들이라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을 감안할 때 두 언어 모두 주어 탈락을 허용한다는 사실은 교수와 학습자 모두에게 매우 반가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두 언어의 주어 탈락

1) 언어 현상뿐만 아니라 문화 현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경험한 바이지만 스페인어권 국가의 문화나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행동 등을 우리는 우리 문화의 잣대로 이해하기가 쉬워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상이 표면적인 공통점에서 더 나아가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학습자가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 문제를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의 주어는 동사의 인칭을 통해 그 내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두 언어는 표면적 차이가 워낙 큰 편이라 주어 탈락 현상이 실제로 두 언어에서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좀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즉, 영어나 스페인어나 모두 관사를 사용하는 언어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사 용법에 있어 두 언어간에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어 탈락 현상도 실제로는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필자의 교육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습자들이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을 원어민들처럼 자연스럽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주어 탈락은 두 언어에서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 학습자는 주어 탈락과 관련하여 원어민처럼 잘 구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을 한국어의 주어 탈락 관점에서 이해하고 구사한다는 것이다. 즉, 주어 탈락 문제만큼은 한국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역시 한국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두 언어의 주어 탈락 현상을 비교하고 더 나아가서 목적어 탈락 현상까지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주어 탈락 현상에 대해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기술해 본 다음 한국인이 스페인어를 구사할 때 주어 탈락을 원어민 정도 수준으로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2)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미국과 프랑스 사람들은 명시적 주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주어 탈락 매커니즘을 목표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를 통해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제Ⅱ장에서는 목적어 탈락과 관련한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차이를 논의해 본다. 제Ⅲ장에서는 스페인어에서 탈락 현상과 관련하여 주어-목적어 대조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주어 탈락 현상 비교

1.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

필자가 알기로는 한국 학습자들을 상대로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 현상을 가르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주어 탈락을 동사 어미 변화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1) a. Yo hablo
나는 말한다
b. Tú hablas
너는 말한다
c. Él/Ella habla
그는/그녀는 말한다
d. Nosotros hablamos
우리는 말한다
e. Vosotros habláis
너희들은 말한다
f. Ellos/Ellas hablan
그들은 말한다

(2) a. I am
b. You are
c. He/She is
d. We are
e. You are
f. They are

영어의 경우는 주어에 따른 동사의 변화형이 (I) am, (He/She) is, (You/We/they) are 세 가지뿐인 반면에 스페인어는 주어의 인칭에 따른 동사 변화형이 모두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서 특이한 면을 보인다. 따라서 스페인어는 굳이 주어를 말하지 않더라도 동사의 '풍부한' 어미 형태(richness of agreement morphology)만으로도 몇 인칭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서 주어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주어 탈락 현상을 동사 어미의 명시적 구분에 기인한다는 설명에 대해 불어에 대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즉, 아래에서 보듯이 불어도 1/3인칭 단수를 제외하고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인칭에 따른 동사의 어미 변화가 모두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주어 탈락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명시적인 동사 어미의 구분은 주어 탈락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a. *(Je) travaille
b. *(Tu) travailles
c. *(Il/Elle) travaille
d. *(Nous) travaillons
e. *(Vous) travaillez
f. *(Ils/Elles) travaillent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언어 행위는 문자에 의해 기록된 것보다 말을 통해 전달하는 구어(口語) 행위가 더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불어의 경우는 비록 문자 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발음만 놓고 본다면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발음이 동일하다. 따라서 주어를 탈락시킬 경우는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가 몇 인칭을 가리키는지 추론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로맨스 언어에서 주어 탈락은 문어가 아닌 구어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스페인어는 문자로 적은 경우뿐만 아니라 발음 면에서도 모두 6가지 인칭이 뚜렷이 구분되므로 주어 탈

락이 쉽게 설명되는 반면에 불어의 경우는 문자로 적은 경우만 구분이 될 뿐 발음 면에서는 인칭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주어 탈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불어에서 주어 탈락을 허용치 않는 것은 의사 소통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은 언어의 경제성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언어에도 경제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아래와 같은 대등 접속 구문에서 두 번째 문장은 술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말의 반복을 피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려는 경제성의 법칙이 인간의 언어 심리 속에도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Juan compró una biclicleta en el centro comercial y yo [e] también.

앞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의 의미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략이 되는 것처럼 주어 탈락 현상도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동사의 어미만으로도 탈락된 주어 인칭의 회복이 가능하므로 주어 탈락 현상도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 경제성 추구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할 듯 싶다. 경제성 관점에서 동사의 풍부한 어미형만으로도 탈락된 주어의 회복이 가능하다면 인칭 주어의 탈락이 의무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스페인어에서 인칭 대명사가 출현하는 경우는 분명 영어에서 주어가 출현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주어를 강조 혹은 대조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5) Canto.
(6) **Yo** canto.

(5)는 그냥 '나는 노래한다'라는 일반적인 의미이다. 즉, 내가 노래하는 사건(event)을 가리킨다. 반면에 주어가 사용된 (6)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노래한다'의 강조적인 의미 혹은 '(그녀는 춤추고) 나는 노래를 한다'와 같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YO에는 초점 강세(focal stress)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 해준다. 따라서 스페인어와 영어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외국인을 위한 대부분의 교재에서 스페인어의 인칭 대명사의 출현은 수의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무적 탈락에 가깝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비교할 때 영어의 I love you는 스페인어의 Te quiero에 해당되고, 영어에서 주어에 초점 강세(이탤릭체로 표시)가 주어진 ***I*** love you의 경우는 스페인어의 Yo te quiero에 상응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3)]

2. 한국어의 주어 탈락

앞서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도 주어 탈락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 현상과 동일한 성질의 것인지 아닌 지의 여부는 면밀한 비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 필자가 학생들을 지도한 바에 따르면 스페인어로 말을 하거나 작문할 때 한국 학생들은 명시적 주어를 적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수업 시간에 스페인어에서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늘 강조를 하는 편이어서 학생들 역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스페인어로 말을 하고 작문을 하는 상황에 들어가면 주어 위치에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4)] 마치 우리가 관사 용법에 대

3) 영어와의 비교는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스페인어는 주어 탈락뿐만 아니라 주어의 후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후치 주어가 영어의 전치 주어에 상응한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4)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글로 직접 써보게 하는 경우와 구어로 하는 경우가 다소 차이가 났다. 文語의 경우는 주어 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口語는 주어 탈락률이 현저히 낮았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문어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학습자가 사전에 학습된 언어적 지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구어는 시간적인 여유의 부족으로 이러한 학습된 지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해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해 말할 때 더 자주 틀리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상황이 재연되는 셈이다. 왜 그런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의 판단에는 학생들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학생들의 의식 속에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소위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영어에서 주어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등장해야 하듯이 스페인어의 경우도 명시적인 주어를 등장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 관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스페인어에 대한 언어 직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명시적 주어를 적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혹은 제대로 된 문장이 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도 주어 탈락이 되는 언어인데도 스페인어를 구사할 때 명시적 주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은 두 언어에서 주어 탈락 매커니즘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5] 만약 한국어의 주어 탈락 현상이 스페인어의 그것과 동일한 매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스페인어를 구사할 때(특히 구어체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명시적 주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힘들 것이다.

한국어에서의 주어 탈락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아래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주어의 인칭에 따른 동사 어미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6]

---

5) 로맨스어와 동양어(한국어, 일어 등)의 주어 탈락 매커니즘 차이에 대한 생성문법적 접근에 대해서는 Huang(1989)을 참조하기 바란다.

6) Jaeggli & Safir(1989)에서는 획일적인 굴절 패러다임(uniform inflectional paradigm)을 지닌 언어는 영주어를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i) The Null Subject Parameter
Null subjects are permitted in all and only languages with morphologically uniform inflectional paradigms.

(ii) Morphological Uniformity
An inflectional paradigm P in a language L is morphologically uniform iff P has eighter only underived inflectional forms.

한국어는 가령 hablar에 상응하는 '말하다'가 인칭에 관계없이 모두 획일적인 굴절 패러다임을 보여준다({나는/너는/그는,그녀는/우리는/너희는/그들은,그녀들은} 말한다). 따라서 스페인어는 인칭에 따라 동사 어미가 모두 다른 형태로 변한다는 점에서, 한국어는 모두 똑같다는 점에서 각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7) a. 나는 공부한다
b. 너는 공부한다
c. 그/그녀는 공부한다
d. 우리는 공부한다
e. 너희들은 공부한다
f. 그들은/그녀들은 공부한다

주어의 인칭에 따른 동사 어미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주어의 탈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8) 너 밥 먹었니? - 응, [e] 먹었어.
(9) 너 뭐 하니? - [e] 숙제하고 있어.
(10) 철수는 어디 갔니? - [e] 학교에 갔어.
(11) 내가 짐 들어줄까? - [e] 그렇게 해줄래?
(12) 그는 읽고 있던 책을 놓고 [e] 창 밖을 바라보았다.
(13) 철수는 [[e] 내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어는 고립된 개별 문장보다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선행 문장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주어의 탈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8)-(11)의 경우는 담화의 차원에서 주어 탈락이 이루어지고 (12), (13)의 경우는 문장의 차원이긴 하지만 각각 선행 문장에 선행사가 출현하고 있다. 만약 선행 문장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e] 학교에 갔어"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탈락된 주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길이 없다. 즉, 탈락된 주어를 추론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반드시 "철수는 어디 갔니?"와 같은 선행 문장이 주어져야만 "[ ] 학교에 갔어"가 문장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탈락된 주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듯 싶다. 공통점은 주어 탈락은 탈락한 주어를 회복(혹은 복원)할 수 있는 요소가 제시된 환경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스페인어는 동사의 어미를 통해서 탈락된 주어의 인칭을 회복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선행하

는 문장(담화 상에서 혹은 대등 접속 구문 및 복문에서)에는 탈락된 주어를 가리키는 것이 출현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은 개별 문장 차원에서도 허용이 되는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는 개별 문장 차원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담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구사할 때 왜 명시적 주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해주는 듯 하다. 가령 선행 문장이 주어지지 않고 그냥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라는 문장을 스페인어로 번역시켜 보면 학생들은 'Yo estudio en la biblioteca'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구어체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인칭 대명사 Yo를 적는 경향이 높은 이유는 한국어가 무의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방금 지적했듯이 구어체 문장에서 주어를 적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은 한국어의 무의식적 영향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어에서 주어 탈락은 담화 상에서 선행 문장이 주어지거나 혹은 대등 접속 구문/복문에서 선행 문장이 주어지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와 같이 선행 담화 혹은 선행 문장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주어를 탈락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스페인어 번역에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어 탈락을 시키지 않는 경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행 담화 혹은 선행 문장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 학습자들이 어떤 경향을 보일지 궁금하다. 앞서 주장한대로 한국어에서 선행 문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주어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반대로 한국어에서 선행 문장이 주어진 경우는 주어를 탈락시키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것이 한국어-스페인어 번역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주어 탈락 경향이 높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선행 문장이 주어진 다음 어떤 문장을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는 명시적 주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훨씬 낮았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14) 후안은 스페인 사람이다. [e] 나이는 25살이다. [e] 키가 크고 [e] 잘 생겼다.
(15) 후안은 7시에 일어나서 [e] 8시에 집을 나섰다.
(16) 후안은 [[e] 내일 오후에 오겠다고] 말했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14)-(16)과 같은 예문을 학생들로 하여금 스페인어로 번역하도록 할 경우 [e]에 상응하는 자리에 인칭 대명사 él을 적는 빈도가 매우 낮았다.[7]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14)-(16)의 예문에서 선행 문장에 이미 명시적 주어 '후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주어 탈락 매커니즘의 영향을 받아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는 명시적 주어를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래 (17)-(19)에서 보듯이 선행사를 포함한 선행 담화 혹은 선행 문장이 주어진 경우에 그 이후의 문장에서 명시적인 인칭 대명사 '그/자기'가 출현하더라도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는 (14)-(16)과 마찬가지로 él을 주어 위치에 놓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17) 후안은 스페인 사람이다. 그는 나이가 25살이다. 그는 키가 크고 잘 생겼다.
(18) 후안은 7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8시에 집을 나섰다.
(19) 후안은 [자기가 파티에 가겠다고] 말했다.

(17)-(19) 보듯이 인칭 대명사 '그/자기'가 계속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경우에 주어 위치에 él를 적는 경향이 높지 않다는 사실은 선행 담화 혹은 선행 문장의 출현 여부가 주어 탈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한국어어 주어 탈락 매커니즘이 스페인어 번역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우리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

7) 좀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선행 담화냐 동일한 문장 내에서의 선행 문장이냐에 따라 주어 탈락율에 있어 차이가 나는 듯하다. 왜냐하면 (14)에 비해 (15)/(16)의 주어 탈락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이다.

Ⅲ. 목적어 탈락

이번에는 목적어 탈락 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어와 스페인어는 비록 주어 탈락 현상은 공통적으로 보여주지만 목적어 탈락과 관련하여서는 대조를 보인다.

(20) 너는 숙제 다했니? - 응, [e] [e] 다했어.
(21) 너는 그 영화를 봤니? - 응, [e] [e] 봤어.
(22) 철수는 맥주 두 병을 다 마셨지만 나는 [e] 다 마시지 못했다.

(23) ¿Has hecho la tarea? - *Sí, he hecho [e].
(Sí, he hecho la tarea/la he hecho)
(24) ¿Has visto la película? - *Sí, he visto [e].
(Sí, he visto la película/la he visto)
(25) *Juan comió la paella con mariscos
y yo también comí [e].
(yo también comí la paella/la comí)
(26) *He hecho [e].
(27) *He llevado [e].

(20)-(22)의 예문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선행 담화 혹은 선행 문장에서 선행사가 출현하는 경우 목적어의 탈락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반면에 (23)-(25)에서 보듯이 스페인어는 선행 담화 혹은 선행 문장에서 선행사가 주어지더라도 목적어의 탈락이 허용되지 않는다.[8] 문법적인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행사를 목적어 위치에 한 번 더 적어주거나 아니면 그 선행사에 상응하는 목적격 대명사(lo/la/los/las)를 적어주어야만 한다. 이 사실은 스페인어에서 목적어 탈락이 되지 않는 것은 담화 상에서의 선행사 출현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26)-(27)에서 보듯이 담화 상에서 혹은 선행 문장에서 선행

8) 학자에 따라서는 목적격 대명사를 무시하고 스페인어도 영목적어를 허용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필자는 이를 무시하기로 하겠다. (cf. Campos, 1991)

사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역시 목적어 탈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어는 주어 탈락과 목적어 탈락이 다 허용되는 반면에 스페인어는 왜 목적어 탈락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일까? 앞서 스페인어의 경우 탈락된 주어는 동사의 어미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따라서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는 동사의 어미 변화를 통해 회복이 가능할 경우 주어 탈락을 허용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다. 그렇다면 목적어 탈락도 동사의 어미 변화와 매우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자. 스페인어에서 주어와 달리 목적어는 그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른 동사의 어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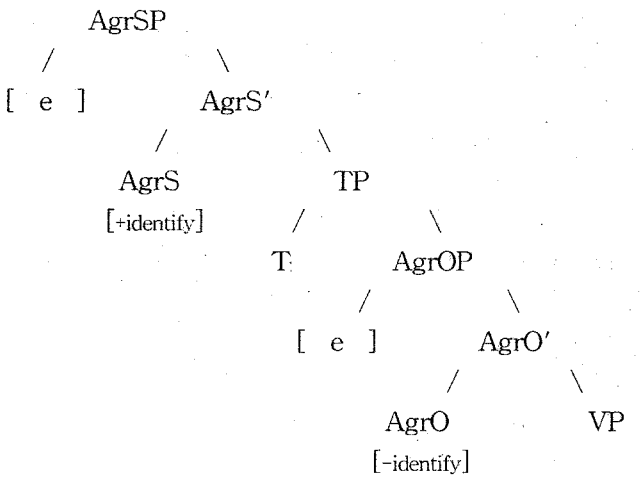
(28) a. Miro {a Juan/a los niños/a las chicas coreanas}
b. {Te/os} miro.
c. Me miro en el espejo.

위의 예에서 보듯이 목적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냐에 상관없이 동사의 어미는 변화가 없다. 인칭에 따라 동사의 어미도 형태적 변화를 하는 경우에만 탈락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목적어의 경우는 목적어의 인칭 변화에 따라 동사의 어미가 형태적 변화를 겪지 않으므로 목적어 탈락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좀더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Pollock(1989), Chomsky(1993)가 제안한 것처럼 일치자질(이하 Agr)을 AgrS와 AgrO로 나뉘고 주어든 목적어든 격자질 및 형식 자질 점검을 지정어-핵(Spec-Head Agreement)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가 각각 AgrS, AgrO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고 볼 때 AgrS는 탈락된 주어를 복원 혹은 확인(identify)할 수 있는 자질이 존재하는 반면에 AgrO의 경우는 탈락된 목적어를 복원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9]

9) 비록 촘스키(1993)는 AgrS나 AgrO는 Agr을 편의상 둘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필자의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르면 AgrS와 AgrO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Chomsky(1993:7) "AgrS and AgrO are informal mnemonics to distinguish the two functional roles of Agr."

(29)



이번에는 한국어의 목적어 탈락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한국어의 경우는 담화 상에서 혹은 선행 문장에서 선행사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주어가 탈락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어에서의 목적어 탈락 현상도 담화 혹은 선행 문장에서 선행사가 출현하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하자. 앞서 (20)-(22)의 예가 잘 보여주듯이 한국어는 선행 담화 혹은 선행 문장에서 선행사가 출현하면 주어뿐만 아니라 목적어도 얼마든지 탈락이 허용된다. 반면에 선행 문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탈락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30) *[e] 했다.
(31) *[e] 가져갔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선행 문장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의 목적어 탈락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2)와 (30)-(31)의 대조는 한국어에서 목적어의 탈락 역시 주어와 마찬가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선행 담화 혹은 선행 문장이 주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국어-스페인어 번역 과정에서 한국어가 미치는 영향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흥미로운 사실은 스페인어를 구사할 때 학생들은 목적어의 경우는 앞서 (23)-(25)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사를 포함하는 선행 문장이 주어지더라도 목적어를 탈락시키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대화를 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앞서 살펴본 (23)의 경우라 할 것이다. 이처럼 선행 문장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던 스페인어는 목적어 탈락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를 구사할 때 (23)-(25)와 같은 상황에서 목적어를 종종 탈락시킨다는 사실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한국어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즉, (20)-(22)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선행사를 포함한 선행 문장이 주어지면 목적어를 탈락시키는 것을 거의 자동적으로 허용하는데 이것이 한국어-스페인어 번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23)-(25)와 같은 예문을 구사할 때 목적어를 빠트리는 경우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영어 역시 목적어 탈락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실은 우리의 주장을 한층 더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학습자에게 '철수는 그녀를 보았다'와 같이 선행 담화나 선행 문장이 주어지지 않은 문장을 번역하게 한 경우에는 목적어 '그녀'에 상응하는 la를 빠트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도 선행 담화나 선행 문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목적어를 탈락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스페인어 번역 과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cf. (30), (31)).

Ⅳ. 주어-목적어의 대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어는 문장 차원에서는 주어 탈락도 목적어 탈락도 허용하지 않지만 담화 차원 즉, 선행사를 포함한 선행 문장이 주어지는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의 탈락을 모두 허용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반면에 스페인어는 문장 차원에서는 주어의 탈락만 허용하고 목적어 탈락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담화 차원에서도 목적어의 탈락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담화 차원에서의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이 허용되느냐의 여부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32) A: ¿Qué compró Juan?
B: [ ] compró unos libros.
(33) A: ¿Es Juan simpático?
B: Sí, [ ] es simpático.
(??Sí, él es simpático)

위의 예에서 보듯이 스페인어 역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담화 차원에서의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이 허용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어는 담화 차원에서도 탈락이 가능한 반면에 목적어의 경우는 담화 차원에서 탈락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담화 차원에서의 탈락과 관련하여 왜 주어-목적어 대조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스페인어의 주어의 탈락은 실제로는 순수하게 동사의 어미 변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의 선행사의 존재도 탈락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즉, 동사의 어미 변화와 담화 차원에서의 선행사 출현이 "조합적으로(compositionally)" 탈락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hablo español과 같은 경우는 선행사의 존재 없이도 얼마든지 주어 탈락이 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탈락이 담화 차원의 선행사의 출현 여부와 관계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habla español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34) ¿[ ] habla español?

위의 예에서 탈락된 주어는 분명 3인칭임을 동사의 어미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실제로 él(Juan), ella(María), Ud.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므로 탈락한 주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담화 차원에

서의 정보도 꼭 필요하다. 이를 도식화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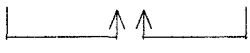
(35) [TOPIC JUAN] ... [[e] habl***a*** español]]?

[+identify] [+identify]

(35)에서 보듯이 동사의 어미(Agr)는 1인칭, 2인칭, 3인칭과 같은 인칭 부분만을 확인해주고 구체적 대상자(referent)가 누구냐 하는 것은 선행 담화나 선행 문장의 선행사(가령 Juan)가 담당한다. 즉, 동사의 의미는 형식적 부분을 담당하고 선행사는 의미적 부분을 담당한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부족 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를 유발한다고 보면 된다. 마치 화자가 Pedro를 탈락된 주어로 간주하고 "¿habla español?"이라는 말을 했는데 청자는 Pedro가 아닌 다른 제 3자나 혹은 자기 자신으로 해석하고 대답을 함으로써 화자가 원하는 답이 아닌 다른 답을 말하는 의사소통 장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동사의 어미는 의사소통을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조건인 선행사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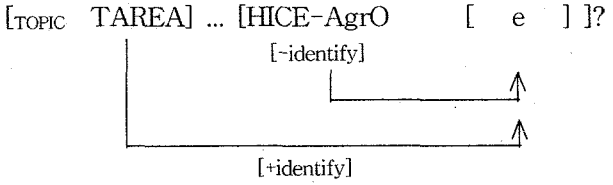
그렇다면 {hablo/hablas/hablamos/habláis} español와 같이 겉보기에 탈락된 주어를 동사의 어미만으로도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1, 2인칭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두 과정이 조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즉, 동사의 어미만으로도 탈락된 주어를 복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자의 의식 속에는 비명시적 형태(implicitly)로 선행사의 출현이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hablas español?이라는 문장을 말할 때 비록 명시적으로 선행하는 담화나 선행 문장이 없더라도 화자 앞에 있는 상대방의 존재 그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는 비명시적 선행 담화나 선행 문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hablo/hablas/hablamos/habláis} español과 같은 경우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36) [$_{\text{Implicit TOPIC}}$ TÚ] ... [[e] hablas español]]?



이처럼 스페인어의 주어 탈락에 두 가지가 조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목적어의 경우도 두 가지가 조합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이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스페인어에서 선행사를 포함한 선행 담화나 선행 문장이 주어지더라도 목적어의 탈락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다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사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탈락한 목적어의 인칭을 복원할 수 있는 형식 자질이 동사 어미(AgrO)에는 없기 때문에 목적어의 탈락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37) A: ¿Hiciste la tarea?
B: *Sí, hice [e]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탈락과 관련한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현상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외국어 학습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주어, 목적어 탈락 매커니즘이 스페인어의 구사에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어에서 주어의 경우 선행사를 포함한 문장이 담화 차원에

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어 탈락이 허용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에 스페인어 구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학생입니다'와 같은 문장을 번역할 때 인칭 대명사 Yo를 적는 경향이 (특히 대화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한국어에서 선행사를 포함한 문장이 담화 상에서 주어지면 주어 탈락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스페인어 구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명시적 주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셋째, 목적어의 경우 한국어는 선행사를 포함한 문장이 담화 상에서 주어지면 목적어를 탈락시키게 되는데 스페인어가 목적어 탈락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구사할 때 목적어를 자주 탈락시키는 이유는 바로 한국어의 목적어 탈락 매커니즘이 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탈락과 관련하여 스페인어는 주어만 가능하고 목적어 탈락이 허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답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탈락이 허용되려면 선행사와 동사 어미 변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음 주어-목적어 대조를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목적어 탈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선행사 조건은 만족되지만 동사의 어미 변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김우성(1996), "스페인어의 주어 생략", 『이중언어학회지』 13, 268-287.

임홍빈(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 : 3, 331-384.

심상완(2003),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주어-목적어 탈락 현상", 미발표 논문, 단국대학교.

최종호(1998),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공주어현상 비교연구", 『서어서문연구』, 210-225.

Chomsky, N.(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A View from Building 20,* MIT Press.

Hasegawa, N.(1984), On the So called "zero pronouns" in Japanese, *LR*, 4 289-341.

Jaeggli & Safir(1989), "The Null subject parameter and parametric theory" *The Null Subject Parameter*, Kluwer, 1-44.

Ouhalla, J.(1999), *Transformational Grammar*, Arnold.

Rizzi, L.(1982), *Issues in Italian syntax*, Foris.

_____.(1986), "Null objects in Italian and the theory of pro." *LI*, 17 501-557.

Zushi, M.(2003), "Null arguments: the case of Japanese and Romance" *Lingua*, 113, 559-604.

심상완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 330-714
전화번호: 041) 550-3186
E-mail: pablo@dankook.ac.kr

논문접수일: 2003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2003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03년 12월 15일